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 제 198 호

2019 년 2 월 11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화학)간담회' 안내 (2/27)
2.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안내
3.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및 주요 회원사 방문 결과 공유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연회비 정책 간담회·설문조사 결과 공유
5. 기업 SDGs 이행사례 공유 UN 플랫폼 안내

##### ■ 본부 소식

1. [2019년 신년사: 전환점의 해]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2.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자원 마련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행동 촉구

3. 기업 내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참여를 위한 새 이니셔티브 출범
4.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s, 기후 행동 관련 사업 기회 강조

####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7 – 지속가능한 에너지
2. [SDGs 시장기회] 분산 에너지 시장
3. [SDGs 솔루션] SDG 렌즈, 글로벌 목표의 가치를 발견하다

#### ■ UNGC 회원 뉴스

1. KB국민은행 4.5억달러 지속가능채권발행...'해외책임투자동향대응'
2. SK텔레콤, 대한적십자사와'헌혈앱'개발한다
3. KT, 사회공헌 사업에 블록체인 적용... 기부 과정 투명성 높인다
4. '아동착취 재료는 가라'LG화학 '착한 코발트'대작전
5. '에코 경영' BGF리테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선정

#### ■ CSR 뉴스

1. 권익위 "한국부패인식지수, 역대최고점수...반부패 노력영향"
2. "사회적경제에금융의물줄기흐르게할것"...'한국판 BSC'세상에 첫선
3. 소비자 69% "착한기업에 소비"...윤리경영,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화학>간담회' 안내 (2/27)



###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 간담회

2030년까지의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유엔,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해 기업도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민관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KPMG는 6개 분야의 SDGs 산업별 매트릭스를 공동 발간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추가 연구 조사를 진행하여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발간물은 산업군과 관련된 협력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SDGs 각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 산업군의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산업 내 SDGs 전략 및 실질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 프로그램

- 일시: 2019. 2. 27 (수) 16시 ~ 18시
- 장소: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시청역)
- 대상: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 산업군 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15명 선착순) \*Invitation Only

시 간	프로그램
16:00 - 17:00	- UNGC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소개 -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개 -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 소개 - 질의 응답
17:00 - 18:00	- 참가 기업 및 기관의 SDGs 사례 및 활동 공유

\* SDGs Compass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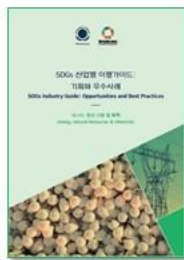
식음료 및 소비자재  
(2018.5.10)



제조업  
(2018.6.19)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2018.7.19)



에너지·천연자원 & 화학  
(2019.2.27)

[초청장 다운받기]

[참가신청 바로가기]

[원문보기]

## 2.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 년, 2017 년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활동을 담은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은 매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UNGC Leaders Summit,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여러 컨퍼런스, 국제회의 등에서 배포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UNGC 전세계 Local Network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분야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7 개 목표와 122 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는 K-SDGs 는 2030 년까지 SDGs 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국형 SDGs 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K-SDGs 수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반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SDGs 추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는 회원 기업들의 SDGs 전략과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사례집에는 2017 년에 이어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할 기업을 함께 모집합니다. 본 서약은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 목표 및 행동 계획을 포함하며, CEO 서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기업의 SDGs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2017 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10 주년을 맞아 민간기업, 공기업, 시민사회 등 총 31 곳이 서약에 참여하고 2017 UNGC Korea Leaders Summit 에서 서약에 참여한 CEO 를 모시고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 년에도 서약식을 개최하여 SDGs 달성을 위해 힘쓰는 CEO 들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추후 공지 예정)

자사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회원사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국문 및 영문



▷ 내용: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2) SDGs 전략 및 사례 (SDG Goal 6 개 제외),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활동 내용 (없을 시 생략)

▷ 양식: 국문 및 영문 각 A4 4 매 내외(사진 포함), 글자크기 10 (양식 참고)

※ 사진 및 회사로고는 고화질 파일로 별도 제출 요망

▷ 일정: 국문은 2/11(월), 영문은 3/29(금)까지 제출

▷ 발간: 국문은 3 월 초, 영문은 4 월 초 예정

##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 국문 및 영문



### CEO Commitment to SDGs / 자치 선언



- ▷ 내용: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 목표 및 행동 계획, CEO 서명
- ▷ 양식: A4 1 장 이내 (양식 참고)
- ※ 회사 로고 및 CEO 서명 고화질 파일로 별도 제출 요망
- ※ pdf 파일 제출시, 워드 또는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 ▷ 일정: 국문은 2/11(월), 영문은 3/29(금)까지 제출

### [양식 다운받기]

담당: 김경민 과장

T: 02-749-2150

E. kmkim@globalcompact.kr

### [원문보기]

### 3.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및 주요 회원사 방문 결과 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이하 '한국협회')는 지난 1 월 30 일(수)부터 3 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이하 '일본협회')를 방문하여 각 협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일본협회 회원사 4 곳(올림푸스, 일본항업㈜, IGES, 스미토모화학) 및 EY Japan 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CSR/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협회는 현재 약 300 여 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영리 264 개(Participant 30 개, Signatory 234 개), 비영리 33 개),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신연회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희망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2014 년 일본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 ▲G20/B20 및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정부의 글로벌 아젠다 관심 증대, ▲Keidanran(일본 전경련), 미디어(아사히 신문, 일본경제 신문) 등의 선도적인 역할이 CSR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협회 내에는 회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관심 이슈에 따른 12 개의 분과위원회(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 ▲환경관리, ▲인권실사, ▲인권교육, ▲반부패, ▲재해리스크경감, ▲SDGs, ▲ESG, ▲CSV, ▲여성역량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심 이슈에 대한 Knowledge Platform 으로서 다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료 학습 및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번 미팅을 가진 기업들은 "CSR 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인식하고, SDGs 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슈별 대응을 위한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본협회 및 주요 회원사 방문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연회비 정책 간담회·설문조사 결과 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 연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신연회비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수년간, 오랜 협의 끝에 글로벌 차원에서 2018년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이하 '한국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정책의 도입 및 본부와의 재정 배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 중인 모든 회원사(영리 및 비영리)는 올 해부터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 매출액 500억(US\$ 50 million) 이상의 영리 기업인 경우, 참여 레벨(Signatory 또는 Participant) 선택 후 이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가 발행되며, 연 매출액 500억 이하의 영리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한국협회 기준으로 연회비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11월부터 연 매출액 500억(US\$ 50 million) 이상의 민간 기업 및 시장형 공기업 회원사 약 100 곳을 대상으로 신연회비 정책에 대한 이메일 및 개별 안내를 진행하였으며, 총 5회에 걸친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회비 정책의 도입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회원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기업들의 요청사항 및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소규모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사는 20여곳으로 연회비 도입의 배경, 정책 내용, 향후 진행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간담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는 별도 미팅 또는 유선 및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신연회비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문 항목 중 현재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묻는 내용에는 '대내외 홍보 및 평판 관리'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의견으로는 'CSR을 기업 및 기관 경영에 내재화 하기 위한 계기 마련', '글로벌 표준 준수', '보고서 발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정부 정책 기조(사회적 가치 이행) 등에 동참'과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관심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에 더해 공급망 이슈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공되었으면 하는 혜택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응답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최신 CSR/SDGs 동향 공유 및 교육 제공'

'기업/기관 사례 공유 기회'

'회원 간 파트너십, 네트워킹 기회'

'국내외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신연회비 정책은 오는 3 월 26 일(화) 개최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차총회에서 의제  
상정 및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연 매출액 500 억(US\$ 50 million) 이상의 기업의 참여 레벨 선택  
기한은 3 월 말까지 입니다. 2019 년도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일을 기준으로 1, 2 분기  
회원은 3 월 말, 3 분기 회원은 7 월 초, 4 분기 회원은 10 월 초에 청구서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신연회비 정책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FAQ 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Q>

- **연회비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정책에 따르면 연회비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가 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제명 됩니다. 단, 한국협회는 올 해부터 신연회비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분기별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 **연회비는 원화로 지급하나요 달러로 지급하나요?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 연 매출액 500억(US\$ 500 million) 이상으로 참여 레벨 선택에 해당되는 기업은 원화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원화계좌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환율 1\$=1,100 원 적용)
  
- **연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총수입(Gross revenue),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기준입니다  
※ 단, 지주사의 경우 계열사 매출액을 제외한 지주사의 매출액을 기입
  - 민간 기업의 경우 IFRS공시 기준, 공기업의 경우 알리오공시 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말 회계 마감 기업은 2019년 3월 말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에서 2018년도 매출액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연회비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연회비는 회원사 서비스의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기부금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Tier 선택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 Signatory 또는 Participant 선택 후 Tier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에서 임의로 수정은 불가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또는 한국협회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공기업/공공기관의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재정부 지정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협회 기준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단,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기업(Company)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Public Sector Organization)'으로 참여 유형 변경이 필요하며, 협회에서 일괄 변경할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 5. 기업 SDGs 이행사례 공유 UN 플랫폼 안내

유엔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확산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SDGs 참여, 이행 사례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SDGs 활동과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유엔 플랫폼을 안내드리오니 UNGC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업 SDGs 이행사례 공유 UN 플랫폼



홈페이지	개요	참여대상	참여방법 및 혜택	운영기관
 <a href="https://goexplorer.org">https://goexplorer.org</a>	기업 SDGs 이행사례, 혁신기술 및 시장기회 게시  기업사례, 시장기회 담은 Global Opportunity Explorer 보고서 매년 발간	민간기업, 투자자, 정부기관(지자체) 및 파트너 기관	UNGC 회원사례 페이지 제공  파트너십으로 참여시 산업별 시장기회 자료제공	UNGC Sustaina DNV GL
 <a href="https://business.un.org">https://business.un.org</a>	반부패, 아동노동, 교육, 보건 등 이슈별 UN 파트너십 기회 게시  UN 기구별 파트너십 기회와 참여 가능한 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 검색가능	UN 기구 또는 UN 파트너십 사례가 있는 민간기업	42개 UN 기구/기관 파트너십 기회 검색 가능  기업 SDGs 이행계획 및 UN 프로젝트 업로드 가능	UNGC Global Hand
 <a hre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a>	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플랫폼  기업, NGO의 SDGs 이행계획, 활동을 업로드  '자발적 이행계획' 업데이트	회원국, 시민단체, 기업, 학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기업 SDGs 이행사례와 연계된 SDG 목표 선택 후 이행계획 작성, 제출	UN DESA (UN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홈페이지	개요	참여대상	참여방법 및 혜택	운영기관
 <a href="https://www.sdgphilanthropy.org">https://www.sdgphilanthropy.org</a>	기업 재단, 인도적 단체들의 SDGs 활동과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플랫폼  SDGs 관련 재단-UN/정부/NGO 간 협력 지원	SDGs 이슈 관련 사업에 후원하는 재단  SDGs를 이행하는 인도적 단체	홈페이지 가입 후 재단의 SDGs 이행사례 작성, 업로드	UNDP Roc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a href="https://oceanconference.un.org/coa">https://oceanconference.un.org/coa</a>	SDG 14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를 지원하는 이해관계자 플랫폼	기업,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SDG 14 관련 기업의 목표 이슈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보존 등) 선택 후 이행계획 작성, 제출	피지 정부 스웨덴 정부
 <a href="http://www.urbansdgonlineplatform.org">http://www.urbansdgonlineplatform.org</a>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도시별, 목표별로 SDGs 우수사례 게시 및 공유	지자체, 정부기관	아태지역 도시들의 SDGs 이행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가능  SDGs 달성을 위한 도시들의 정책 이행여부, 과제 공유	UN ESCAP 서울특별시 CityNet

\* 모든 플랫폼은 **비용 없이** 참여·공유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실 경우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UNGC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50

E.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원문 다운받기]

[원문보기]

## 본부 소식

### 1. [2019년 신년사: 전환점의 해]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본 신년사는 2019년 1월 16일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UNGC 회원사 앞으로 보낸 서한입니다.**

친애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여러분,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전환점의 해(Year of Tipping Points)"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께 리더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보편적 원칙의 가치 (The value of universal principles)**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창립자인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과 전세계 기업들 간의 범지구적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코피 아난이 이 협약의 기초로서 제시했던 인권, 노동에 대한 원칙들과 환경, 반부패에 대한 존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 흔들리는 세계 (A topsy-turvy world)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 세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과잉과 남용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의 안정적인 기반을 파괴할 수 있을지 의심했고, 터무니없는 수사법과 왜곡된 논리가 진실에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유해지고 있고, 수백만의 절망적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목숨 걸고 고향을 떠나는 한편, 외국인 혐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합니다. UNGC 의 10 대 원칙은 이렇듯 흔들리는 세계가 균형을 회복하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의 3 년 (Three years into the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3 년을 맞이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빈곤 완화와 아동 사망률 감소와 같이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여성과 청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내 근로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목표의 이행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업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천명하고, SDGs 가 제시하는 보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환점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 전환점의 해 (A Year of Tipping Points)

SDGs 17 개 목표 확산을 위한 고무적인 기업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더 빠르게 확장되어야 하며, '기업 지속가능성'을 아이디어에서 실제적이고 주류인 현실로 바꾸는 전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2030 의제는 연 3~5 조 달러에 이르는 SDGs 자원 확보를 도울 수 있는 투자업계를 포함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끌어가도록 요구합니다. 2030 년까지 SDGs 를 달성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리더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원 (How we work to support you)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수장으로서 저는 70 개 UNGC 지역협회들이 현지에서 진행하는 인식 제고 및 행동 촉진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역협회들은 지속가능성을 국가와 지역 차원의 이슈로

격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목표를 지역 비즈니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UNGC 회원의 80% 이상이 SDGs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회원사 CEO 의 3 분의 2 이상이 SDGs 를 책임있는 기업 혁신의제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 플랫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UN Global Compact Academy)에서부터 기업들이 SDGs 와 UNGC 10 대 원칙에 대한 진전 사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SDG 보고 프레임워크(SDG Reporting framework)와 기업들이 UNGC 고유의 원칙 기반 접근을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고안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이 그 예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해 기업이 진정한 선한 동력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를 독려하는 바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막더라도 UNGC 10 대 원칙을 따라 SDGs 를 향해 나아갑시다.

20 년 전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주창했고 오늘날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옹호하고 있듯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SDGs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는 기업의 노하우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과 같은 리더 말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전환점의 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 [원문보기](#)
- [영상 바로가기 \(한국어 자막\)](#)



## 2.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자원 마련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행동 촉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지난 1월 23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30 의제(2030 Agenda)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과 연간 2.5 조 달러로 추정되는 자원격차 해소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UNGC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원 마련을 위해 기업,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을 보여주면서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진전과 기여를 평가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UNGC-핌코(PIMCO)가 공동 주최하고, 기업, 투자자 및 금융기관들을 모여 SDG 투자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및 재정 확보 수단을 논하는 2019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부대행사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해 매년 약 5~7 조 달러가 동원되어야 하며, 원조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은 "SDGs 자원 확보는 큰 도전이지만 극복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가 지속가능성과 투자 수익이 장기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투자의 주류화라는 전환점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원칙 기반 투자자들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발행자와 사회 책임투자자들의 기대 및 요구에 부합합니다. SDGs 사업모델은 민간부문의 SDGs 활동에 대한 자원 마련 방안으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는 SDGs 재원이 단순 그린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사용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SDG 채권과 같은 채권 금융상품은 SDG 투자를 주류화하고 자원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콧 매더(Scott Mather) 핼코(PIMCO) 최고투자책임자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금융 및 시민사회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SDG 채권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우리는 임팩트 투자 전략을 주류화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의 관심사이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및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기관 투자자들이 2030 의제(2030 Agenda)의 구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고, 유동적이며,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고려하는 투자는 수익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30 의제의 달성을 낙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SDGs 를 위한 금융 혁신(Financial Innovation for the SDGs)' 행동 플랫폼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SDG 투자가 주류화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컨셉, 의견을 수렴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 플랫폼은 선도 기업, 은행 및 투자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글로벌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견하도록 지원합니다.

지난해 UNGC SDGs 를 위한 금융 혁신 플랫폼은 <SDG Bonds & Corporate Finance – A Roadmap to Mainstream Investments> 백서를 발간하여 2030 의제 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문보기](#)

### 3. 기업 내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참여를 위한 새 이니셔티브 출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19년 2월 1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업 내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영 SDG 이노베이터(Young SDG Innovators)' 프로그램은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일련의 액션러닝 워크숍과, 글로벌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니셔티브는 이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혁신에 적용해볼 기회를 줌으로써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날 덴마크에서 열린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이 오늘날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이 프로그램은 젊은 사업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다가가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덴마크협회에 의해 출범되어 올해 전세계 10여개의 지역 협회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 사업가들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한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발굴하는 연례 프로그램인 유엔글로벌콤팩트 'SDG 선구자(SDG Pioneer)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청년 비즈니스 리더들이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관점,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열정을 갖춘 젊은 세대에 주목하여, 올해 35세 이하의 청년 비즈니스 리더 발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보그(Tuborg) 재단이 후원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덴마크협회와 투보그재단이 코펜하겐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출범했습니다.

###

### **영 SDG 이노베이터(Young SDG Innovators) 프로그램**

전세계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소속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 SDG 이노베이터(Young SDG Innovators)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폭제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동료학습을 경험하고, 여러 워크숍과 교육 과정을 통해 각 분야의 선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해시태그 #youngSDGinnovators 로 소셜미디어에서 대화에 참여하세요.

### **SDG Pioneers 프로그램**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에 일환으로, 매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발굴합니다. 'SDG 선구자(SDG Pioneer)'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책임 있는 기업들이 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 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 내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최소 5 명의 청년 전문가(35 세 이하, 직급 불문)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그루지아, 케냐, 레바논, 네덜란드, 남아공, 스리랑카,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향후 수 주 내에 시작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선별 절차는 5 월 시작되는 글로벌라운드에서 마무리되며, 선발자들은 2019 년 9 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주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해시태그 #SDGpioneers 로 소셜미디어에서 대화에 참여하세요.

[-원문보기](#)

#### 4.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s, 기후 행동 관련 사업 기회 강조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s 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6 개 부문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그로 인한 기회를 분석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노르웨이의 Go Explorer Day 2019 에서 500 명의 비즈니스 리더 및 학생들과 함께 1 행동 년간의 기후 솔루션과 기후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원을 받아 DNV GL 와 서스테니아(Sustainia)에서 발행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s 는 기후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6 개 부문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그로부터 얻는 기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리더십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획기적인 혁신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니다. 기후 위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시키는 데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s 를 통해 증명되었고,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보고서에 기여한 사람으로는 유니레버의 전 CEO 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위원회 폴 폴먼(Paul Polman) 부회장, 풀리처 상 수상자,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 선구적 사상가 코니 헤데가르드(Connie Hedegaard), 스위스 비행가 버트랜드 피카르드(Bertrand Piccard)가 있습니다.

라스무스 쇼트 페데르센(Rasmus Schjødt Pedersen) 서스테니아 CEO 및 수석 파트너는 "2019 년 기후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서스테니아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슬로는 세계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로, 우리는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기후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미 에릭슨(Remi Eriksen) DNV GL 그룹 사장 겸 CEO 는 "세계가 직면한 위험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Global Opportunity Explorer 의 기본 논리는 아이디어와 후원자를 연결하고 지속가능 솔루션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s 는 현재 지속가능 솔루션을 위한 개방형 에코시스템인 Global Opportunity Explorer 의 일부입니다.

[-원문보기](#)

## ■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9 (2019)



Global Opportunity Explorer 2019 Insight 는 미래 기후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6 개 부문을 조명합니다. 연결성(Connectivity), 에너지(Energy), 금융(Finance),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 이동성 (Mobility), 그리고 식량(Food) 부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사업을 기후 리스크에서 기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Global Opportunity Explorer 는 기후변화의 새로운 시장 환경 하에서 혁신 기회를 발견한 기업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솔루션 및 전략, 비전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레이스에서의 승리가 비즈니스 리더들의 비전과 리더십에 달려 있는 만큼,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한 글로벌 기후 리더들의 통찰과 해안을 공유합니다.

- [원문보기](#)

# SDGs 소식

##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7 – 지속가능한 에너지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 Goal 7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7 번 목표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 역시 공급업체 선정 시 이를 적용하고, 공급업체의 역량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도적인 기업은 자사의 기술을 활용해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신시장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BUSINESS ACTION 1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며, 공급업체의 선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련 행동을 촉진합니다.



## 우수사례

- ▶ 글로벌 가구업체 A 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사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LED 조명, 전력 품질 최적화 그리고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더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 의료기기 제조업체 B 사는 자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고,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충당하는 공급업체와의 조달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에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waste-to-energy technology)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BUSINESS ACTION 2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적용합니다.

## 우수사례

- ▶ 카셰어링 기업 C 사는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 기술을 운송 시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 ▶ 전력회사 D 사는 높은 선불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pay-as-you-go 모델과 블록체인 모델을 제공하는 혁신 모바일 금융기술을 출시했습니다.



## BUSINESS ACTION 3

신시장과 지역 사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개발·구현합니다.

## 우수사례

- ▶ 에너지기업 E 사는 그리드 기반 에너지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에 EV 배터리를 재활용한 재생 에너지 저장설비를 제공합니다.
- ▶ 식품 제조업체 F 사는 설탕공장의 재생 연료 보일러에서 생산된 전기와 바이오 연료를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 [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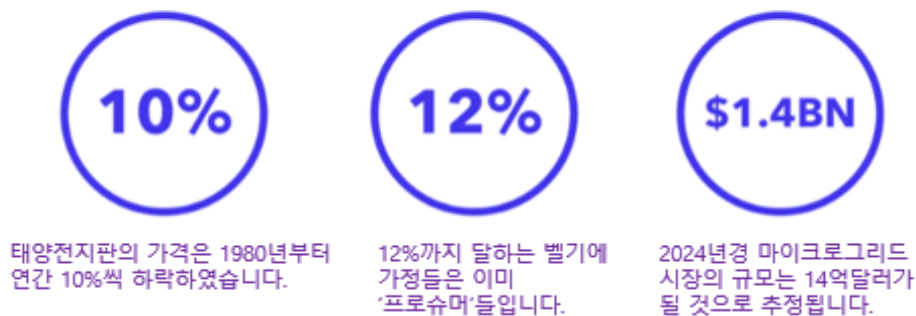
## 2. [SDGs 시장기회] 분산 에너지 시장

에너지는 디지털화 및 기술발전으로 중앙 집중형 서비스에서 개인 간(Peer-to-peer)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공유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산적인 마이크로그리드는 시민들이 이웃들과 여분의 재생가능전력을 교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후 혼란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점차 찾아지고 강해지는 홍수, 폭풍, 그리고 그 밖에 극한 날씨는 에너지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한편, 도시에 정전 사태를 초래합니다. 이에 맞서, 기존의 그리드와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산된 에너지 시스템들이 전체 에너지 공급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분산형 에너지의 공유에 있어 마이크로 그리드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수급균형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변동상황에 대응능력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은 분산된 그리드에서 전력의 지역간 거래에 있어 중개자 없이 가정 간 전력교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분산된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MARKET KEY NUMBERS



### 제품과 서비스

새로운 분산 에너지 시장의 제품들은 에너지 흐름과 유연성 보장을 위해 태양전지판, 스마트 미터, 그리고 기타 스마트 장치들과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 공유를 가능케하는 태양열 저장소 커뮤니티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처리 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기회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 공간에서 가능한 다른 서비스는 네트워크가 가상 전력 발전소의 역할을 하도록 더 큰 그리드에서 여러 마이크로 그리드를 연결하는 서비스, 독립적인 배터리, 태양 전지판 및 효율적 에너지건물의 무질서하게 뿔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시스템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입니다.

블록체인과 분산에너지 공유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기공급원은 소비자와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이 관계는 재형성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각자의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공급원에 다시 판매하거나 이웃에게 직접 초과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전기공급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프로슈머'가 됩니다.

## 시장 규모와 수요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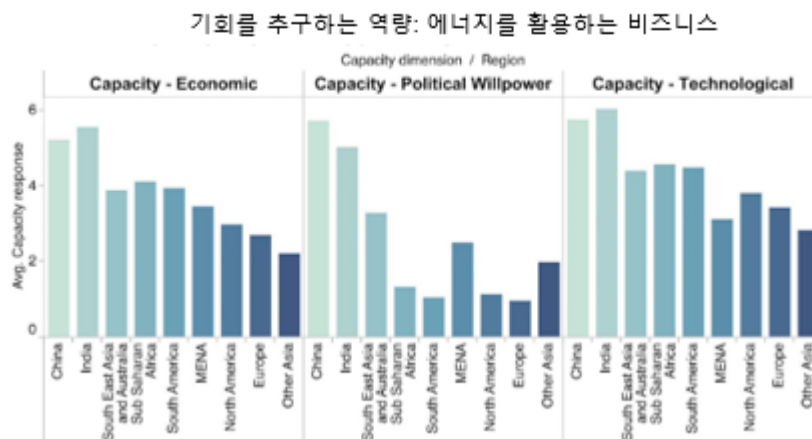
지역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시장은 2015 년에 1 억 6290 만달러에서 2024 년에는 14 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의 경우 2020 년까지 수익이 400 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수요 동인은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소비자들의 증가입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증가와 태양 전지판, 소규모 풍력발전용 터빈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소같은 마이크로 세대 기술의 비용 감소와 함께 이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정부와 시민들의 다양한 분산 에너지원들에 투자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저장소 시장도 떠오르는 기회공간입니다. 배터리 시장은 수요가 확실하고, 배터리의 제조 비용의 감소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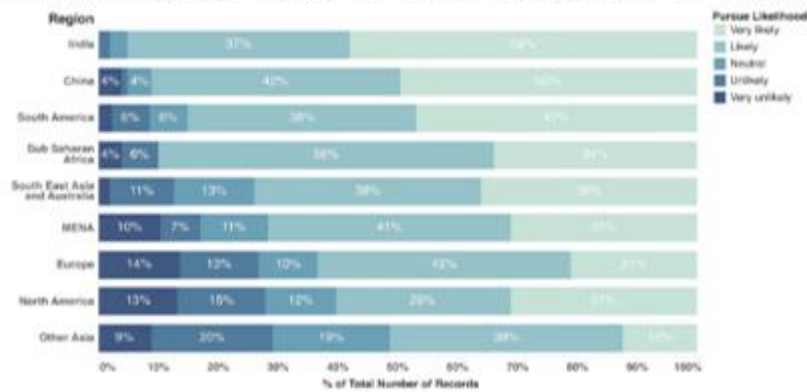
전력 사업은 인도와 남아메리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시장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블록체인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분산 그리드들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장을 뜻합니다.



설문의 결과를 통해 분산된 에너지 시장이 인도를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리더들은 시장 성장을 위한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들이 인도 시장에서 쉽게 이용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장은 분산전력전달을 통하여 녹색전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리더들은 분산에너지 시장을 성장하게 할 기술적 역량이 그들의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중국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응답자들도 그 기회가 기업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장 자신하는 리더들입니다. 또한, 인도 리더들에 의하면 이 시장기회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 공급에 있어 인도 시장이 급성장할 것을 나타냅니다.

귀사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시장에서 부상하는 사업기회들을 추구할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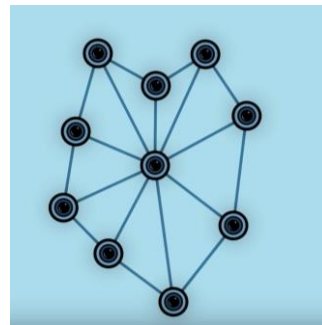


2016 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은 이 기회가 제조업 및 이외 분야에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문보기](#)

### 3. [SDGs 솔루션] SDG 렌즈, 글로벌 목표의 가치를 발견하다

*DNV GL 은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게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하고 동종기업들과 비교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DG 렌즈(SDG Lens)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입니다. 규모에 관계 없이 기업들이 자가평가 툴 사용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SDGs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기업에서 개발한 SDG 렌즈툴은 SDGs 이행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기업의 전략에 바로 적용하고, 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SDGs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향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DNV GL은 기업을 위한 자기평가 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SDG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함께, SDG 렌즈는 공통의 SDGs 목표와 지표를 공유하는 기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표준화된 SDG 렌즈 기반의 우수사례 평가기법에 의해 이뤄집니다. SDG 렌즈 분석 보고서(SDG Lens analysis report)는 참여기업들과 공유되어 SDGs와 관련해 자사의 수준 확인, 비교를 가능케 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기업은 우선순위로 지정된 SDGs 목표를 달성을 위해 다른 기업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 Why you should care

기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DG 렌즈 툴은 SDGs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기업도 SDGs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들이 속한 산업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 Partnerships for the Goals

기업이 SDGs와 연계된 우수사례와 목표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NV GL은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은 물론 SDGs 특정 목표에 대한 정보도 지원합니다.

- [원문보기](#)

# UNGC 회원 뉴스

## 1. KB국민은행 4.5억달러 지속가능채권발행...'해외책임투자동향대응'

### KB국민은행 4.5억달러 지속가능채권 발행...'해외 책임투자 동향 대응'

ⓒ 이승균 기자 | ⓒ 승인 2019.01.29 15:26



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지속가능채권을 연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29일 "4억 5천만달러의 후순위 채권을 지속가능채권을 형태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발행 금리는 미국국채 10년물금리에 187.5bps를 가산한 4.5%가 적용되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 KB 국민은행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지속가능채권을 연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국민은행은 29일 "4억 5천만달러의 후순위 채권을 지속가능채권을 형태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힘.
- 공시에 따르면 발행금리는 미국국채 10년물금리에 187.5bps를 가산한 4.5%가 적용되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 채권 발행은 시티그룹, HSBS,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KB 증권이 보조 주관사로 참여함.
- 앞선 10월 국민은행은 선순위 형태 지속가능채권을 3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바 있음.
- 지속가능채권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기업의 비재무적 데이터를 검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조하는 채권을 말함.
- 국민은행은 공시를 통해 해당 채권 발행에 대해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연속된 지속가능 채권 발행으로 지속가능투자 분야 선도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됨.

[미디어 SR](#)

## 2. SK텔레콤,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앱' 개발한다

### SK텔레콤,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앱' 개발한다

입력시간 | 2019-01-29 09: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MoU 체결 사진, SK텔레콤 유웅환 SV 이노베이션센터장(가운데 좌측), 적십자사 김명한 혈액관리본부장(가운데 우측)이다.

- 헌혈 시 발생하는 혈액분석 결과를 활용해, 헌혈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스마트 헌혈 앱'이 나옴.
- SK 텔레콤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힘.
- 협약식에는 유웅환 SK 텔레콤 SV Innovation 센터장과 김명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수혈자의 안전만을 위해 진행해온 혈액분석 결과를 헌혈자의 건강 관리에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분석임.
- ICT 기술을 활용해 헌혈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 헌혈 앱은 기존의 헌혈자들이 헌혈을 하다가 중단하는 비율이 89%에 달하는 점에 착안해, 헌혈자들이 꾸준히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
- 헌혈을 통해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으로 자신의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 혈액 검사 결과를 볼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경우 건강상태 추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함.

[이데일리](#)



### 3. KT, 사회공헌 사업에 블록체인 적용... 기부 과정 투명성 높인다

#### KT,사회공헌 사업에블록체인 적용...기부 과정 투명성 높인다

KT그룹희망나눔재단 '라오스 감염병 예방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적용

최종수정 2019-01-24 09:39



▲KT 임직원이 라오스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KT)

- KT 가 KT 그룹희망나눔재단의 사회공헌 플랫폼 '기브스퀘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힘.
- KT 희망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기브스퀘어는 봉사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플랫폼'임.
- KT 희망나눔재단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낙후 지역의 ICT, 의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오스 감염병 예방 프로젝트(이하 라오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글로벌 기부 캠페인을 선보이게 되었음.
- 라오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기부 포인트가 '기부 토큰'으로 전환되면, 라오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부활동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설정했고, 기부자의 포인트 기부 현황뿐 아니라 기부물품 구매, 전달 등 모든 기부 집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이투데이](#)

#### 4. '아동착취 재료는 가라' LG화학 '착한 코발트' 대작전

##### "아동착취 재료는 가라" LG화학 '착한 코발트' 대작전

포드-IBM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 '블록체인 시스템' 시범 운영 시작 공급망 투명화해 문제 업체 퇴출, "사회적 책임 다하는 성장 추구"



- LG 화학은 미국 포드와 IBM,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 글로벌 등 해외 기업들과 함께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코발트 블록체인 시스템'을 올해 초부터 시범 가동했다고 밝힘.
- 분산형 데이터 저장으로 조작과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공급망을 투명화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아동 착취 등 인권침해가 있는 광산의 제품은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임.
-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으로 이들 3개 회사는 코발트가 쓰이는 배터리 공정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화해 영국의 원재료 공급망 검증 기관인 RCS 글로벌에 전송함.
- RCS 글로벌의 검증을 거친 데이터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IBM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분산 저장돼 조작과 해킹으로부터 보호됨.
- LG 화학과 포드, 화유코발트 등 3개사는 올해 6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정식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구축해 업계 표준 모델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5. '에코 경영' BGF리테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선정

# '에코 경영' BGF리테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선정

머니투데이 | 김태현 기자

2019.02.07 16:2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0716042885099&type=1>

기사주소 복사



BGF 진천 중앙 물류센터 /사진제공=BGF리테일

-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 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국토교통부가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친환경 물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물류시설, 운송수단 에너지 관리 △친환경 물류활동 △친환경 사업 계획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함.
- BGF 리테일은 전국 30 여개의 물류센터에 친환경 전기 하역장비와 냉난방 보조 장치인 에코팬 설치와 LED 전등 등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1 년에 탄소배출량(CO<sub>2</sub>) 약 500 여톤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음.
- 또 공기의 저항을 낮춰주는 에어스포일러를 전체 1500 여대의 물류 차량에 장착해 평균 5% 이상의 연비를 개선했으며, BGF 물류차 연비왕 선발대회 등 친환경 물류 캠페인을 벌여왔음.

[머니투데이](#)

# CSR 뉴스

## 1. 권익위 "한국부패인식지수, 역대최고점수...반부패 노력영향"

권익위 "한국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수...반부패 노력 영향"

기사입력 2019/01/29 17:14 송고

조국, 별도 자료 내 "청렴사회 향한 국민열망·文대통령 반부패 의지 결과"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51위에서 45위로 상승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29일 서울 중구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투명성기구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19.1.29 ryousanta@yna.co.kr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가청렴도 지표인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180 개국 가운데 45 위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29 일 평가함.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 점 만점에 57 점으로 전년보다 3 점 올랐으며, 국가 순위는 전년도보다 6 단계 상승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국 중에서는 30 위를 차지함.
- 권익위는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며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 5 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채용비리 근절 등의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함.

[연합뉴스](#)

## 2. “사회적경제에 금융의 물줄기 흐르게 할 것”...‘한국판 BSC’세상에 첫선

# “사회적경제에 금융의 물줄기 흐르게 할 것”...‘한국판 BSC’ 세상에 첫선

등록 :2019-01-28 15:30 수정 :2019-01-28 22:10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5년간 3천억 규모 재원 마련할 예정

“사회적 금융 생태계 키우는 마중물”

중개기관 육성 등 최종 위험부담자 역할

기본법 제정, 평가기준 등 ‘과제’도 남아



23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주요 내빈들이 사회적 금융의 번영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식 출범함.
-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의 기금임.
- 사회가치연대기금의 핵심사업 목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시장기반 구축 등임.
-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탈(BSC)과 같은 역할을 해내겠다는 뜻이며, 이를 위해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앞으로 5년간 약 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임.
- 공식 출범한 사회가치연대기금은 현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재단 운영을 위한 법적 절차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 3. 소비자 69% "착한기업에 소비"...윤리경영,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소비자69% "착한기업에 소비"...윤리경영, 이젠 선택 아닌 필수

UBS 다보스포럼 백서

"부정적 평판 기업 상품은  
의식적으로 안살것" 71%

김명수, 박봉권, 윤원섭, 김세웅, 김준모 기자 | 입력 : 2019.01.22 17:52:22 수정 : 2019.01.23 00:10:44

#### ◆ 다보스포럼 ◆

"UBS 조사 결과 81%의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과 가치관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이제 기업들은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해야 한다."

약셀 베버 UBS 회장이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BS 백서 : 다보스포럼 2019'를 발표했다. UBS는 이날 고객이 자신의 가치와 가장 일치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실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버 회장은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패턴 강화로 인해 이제 기업들에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 나라마다 다른 지속가능한 투자 (sustainable investment) 용어

미국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영국	
독일	지속가능한 투자
브라질	
이탈리아	
중국	영향력 투자
UAE	가치 기반 투자
싱가포르	
홍콩	

※ 자료=UBS 다보스포럼 2019 백서

- 약셀 베버 UBS 회장이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BS 백서 : 다보스포럼 2019'를 발표함.
- UBS 는 고객이 자신의 가치와 가장 일치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실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힘.
- 베버 회장은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패턴 강화로 인해 이제 기업들에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함.
- UBS 설문조사 결과 69%의 소비자는 개인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윤리경영을 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고, 71%는 환경, 지배구조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의 제품은 의식적으로 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베버 회장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혹은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함.

[매일경제](#)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1 월 16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청

## 2. COP/COE 제출회원

1 월 16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10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 한국마사회
- (주)대우건설
- (주)세일인터내셔널
- 울산광역시 남구청
- 진해장애인복지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주)아진트랜스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 년도부터 **UNGC 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 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2019 년 3 월 개최되는 UNGC 한국협회 연차총회 의결 이후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1/4 분기 납부 기업의 연회비 청구서는 총회 의결 이후 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 <1/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극지연구소, 슬로워크, GS 건설, 두산중공업,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주)BGF, 카이스트 경영대학, 구미시청, KT, 한국국토정보공사, 유니베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LG 화학,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K 텔레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KEB 하나은행, (주)케이티하이텔, GS 칼텍스, 팬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뇌교육협회,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한국연구재단, 미술등록협회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